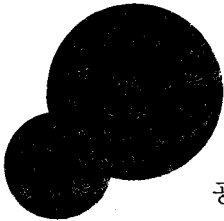


딸기 포장 스티로폴 상자 구입비의 국고지원금은 지속되어야 한다

올해 초 딸기 포장 스티로폴 상자 구입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농림부가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재배농가와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는 협회 최주섭 전무의 주장을 통해 농림부 국고지원금 중단 방침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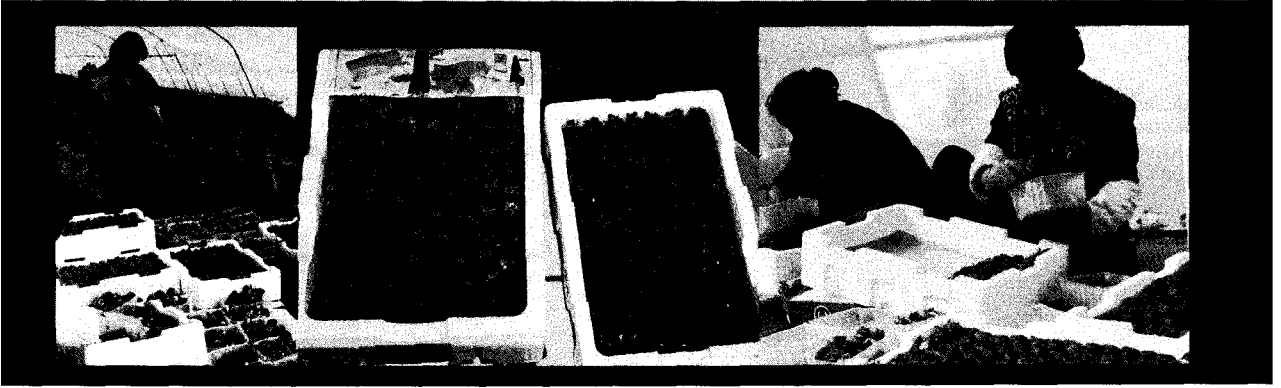
딸기 농가 추가 부담 한해 약 30억원

금년 초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01년도 농산물 규격 출하 세부 추진 지침에 따라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신청 공문을 작목반, 영농법인 등 생산자 조직 등에 통보하였다.

공문의 주 내용은 농산물의 표준 출하 규격 상자를 이용하는 생산자 조직으로 하여금 포장상자 구입에 대한 국고지원금 30%를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이 제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의 거래시 무포장과 비규격 포장을 지양하고 그 대신 농산물 표준 출하 규격 상자의 사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규격 상자를 사용하는 재배농가들에게 구입비의 일부를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딸기 상자의 경우 표준 규격 상자로 지정 고시된 스티로폴 상자 2종(2kg, 8kg)과 골판지상자 5종(1.5kg, 2kg, 4kg, 8kg 2품목)의 상자를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구입비의 30%까지 국고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2002년부터 스티로폴 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추가하였다. 즉 내년부터 딸기 재배 농가에 대해 딸기 출하시 스티로폴 상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금 혜택이 없고, 골판지상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국고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방침이 시행되면 그동안 스티로폴 상자를 사용한 딸기 재배농가들(전체 재배농가의 약 60 - 70%)은 국고지원금 혜택이 없어져 연간 3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다.

재배농가 60 - 70%가 스티로폴 상자 선호

농산물의 포장상자는 생산된 농산물의 단순한 운반수단으로부터 적정 보관, 신선도 유지, 위생성 및 상품성 제고, 소비자 기호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까지 고려하여 많은 변화를 하여왔다. 딸기의 경우도 양은 다라이에서 현재는 스티로폴 상자가 전체의 60 - 70%, 골판지 상자가 30 - 40% 사용되고 있다. 딸기 재배농가들이 스티로폴 포장상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첫째 우천시 등 전천후 포장작업이 가능하다. 둘째 완충성 재질로 취급, 운반 중 딸기의 상처나 부패 방지에 유리하다. 셋째 포장비 및 포장작업시간이 절감된다. 넷째 저렴한 가격 등이 있다. 따라서 딸기 재배농가들이 선호하는 스티로폴 상자에 대해 2002년부터 국고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상자 구입비 30억 이외에도 인건비 증액 등 농가 부담이 훨씬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스티로폴 상자 재활용율 51.3% 달성

스티로폴 상자에 대한 국고지원금 중단의 주요 사유가 된 딸기 상자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포장상자의 여러 기능 중 사용 후 쓰레기 처리 등 환경 문제의 고려는 당연하다. 흔히 골판지 상자는 재활용이 잘 되고 매립시에도 잘 썩어서 환경 친화적이라고 생각하며, 스티로폴상자는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시에는 장기간 썩지 않아 환경 비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상식과는 상당히 다르다. 즉 8kg 들이의 스티로폴 상자는 그대로 딸기를 담게 되지만, 같은 용량의 골판지 상자의 경우 500kg 들이의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의 포장 상자 8-16상지를 2중 포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포장쓰레기 발생량은 단순한 스티로폴 상자보다 더 많게 나온다.

포장상자 재활용의 경우 골판지는 종이류에 속하여 재활용이 순조로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스티로폴 상자도 1996년부터 환경부로부터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지정되어 전국 지자체에서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이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대부분의 도매시장에는 스티로폴 상자의 재활용설비를 갖추고 있어 사용 후 상자 처리에 어려움이 없다.

또한 농산물 상자로 사용된 것은 상자가 깨끗한 편이기 때문에 재활용 자재로서는 매우 훌륭하다. 그리하여 농산물 상자 이외에도 수산물상자, 가전제품 완충포장재 등으로 널리 쓰이는 스티로폴 포장재의 재활용율은 2000년 현재 51.3%를 달성하였다.

더구나 재활용 자재는 사진액자틀이나 욕실발판 등 합성복재로 만들어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다. 따라서 딸기 상자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매립처리 되는 경우 썩지 않는 문제가 있어 소비자와 농산물 소매상들의 깨끗한 분리 배출, 지자체와 대량 발생업체의 철저한 분리 수거, 그리고 재활용업체의 활성화 등 3위 일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1993년부터 스티로폴 원료 업체와 포장상자 가공업체들이 사단법인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를 설립하여 스티로폴 상자의 재활용 촉진에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무쪼록 사용 후 쓰레기 문제는 지자체와 관련업체가 협조하여 재활용을 통해 해결하도록 정책적인 유도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판단되며, 농산물 포장의 기능성이 양호하고 값싼 스티로폴 상자를 재배농가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정당국의 농산물 포장 스티로폴 상자에 대한 국고지원 중단 방침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